

### 처음과 마지막의 노력.

오늘 무한한 아버지는 무한한 단계에서 안정되어 머무는, 무한한 지각과 무한한 태도를 가진, 물질세계라는 무한한 곳에서 육신의 형태로 무한히 봉사하는 고귀한 봉사자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이 공부의 지식 전체의 네 과목 모두의 주된 핵심은 단지 “무한함” 이 한 가지뿐이다. “무한함”이라는 말의 의미에 안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노력이다.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속하는 것은 산 채로 죽는다는 뜻이다. 이것의 토대는 몸에 대한 나의 한정된 의식을 초월해서 영혼의식의 무한한 형태에 안정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의 것은 천사의 형태가 되는 것, 즉 일체의 한정된 관계들을 초월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 쌍을 이루는 이 두 가지에는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처음과 끝, 노력과 보상, 목표와 자격요건, 의식과 힘 등. 무한함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어떤 유형의 유한을 이미 초월했으며, 또 어떤 것은 아직도 초월하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이 목록을 아주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일체의 유한을 넘어, 너희들의 무한한 집에서 무한한 봉사자, 일체의 유한함에 대해 승리를 거둔 승리의 보석, 무한함의 화신이 되어야만 그때 너희는 비로소 최종적인 카르마티트 단계에 대한 경험의 화신이 될 수 있다.

한계에는 수가 많은 반면 무한함은 하나뿐이다. 한도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즉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온갖 유형의 “내 것”이라는 의식은 “나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바 한 분 뿐”이라는 무한한 의식에 합쳐진다. 그러면 확장은 그 본질의 형태가 된다. 확장이 어려우냐, 본질이 어려우냐? 그렇다면 시작과 끝의 교훈은 무엇이나? 무한함이다! 너희가 이 최종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했는지 점검해봐라! 한정된 사물들의 목록을 앞에 두고서 너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이미 초월했는지 체크해라. 이 목록을 입에 올려 언급할 필요는 없다. 무수히 여러 번 들어온 이 목록을 너희들 모두 각자의 공책에 적어놓았다! 너희 모두 일기장과 수첩에 보물을 최대한으로 갖고 있다. 너희들 모두 이를 알고 또 이에 관해 말도 아주 잘 한다. 너희는 이것에 대해 알고 또한 이렇게 행하기도 한다. 그러니 다른 무엇이 있느냐? 밥다다도 역시 모든 선생들과 학생들의 강의를 귀담아듣는다. 밥다다에게 비디오가 없겠느냐? 너희들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최근에야 겨우 발명되었다. 하지만 밥다다는 처음부터 서틀리전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아왔다. 그는 모든 것을 계속 다 듣는다. 너희가 말을 통해서 고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식을 보며 밥다다는 너희를 축하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식으로 밥다다의 요점 하나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이 기억되지만 자녀들은 그의 머리 위의 왕관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아버지 머리 위의 왕관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들려주는 측면에도 역시 그러하다. 너희는 또 다른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세 번째 단계는 초월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유형의 장벽이나 한계를 초월하면서, 일부는 그 한계에 애착을 갖게 되고, 일부는 그것들에 붙들린다. 나머지들은 초월해서 그들의 목적지에서 가깝게 그들을 볼 수 있다. 가시적인 표시는 무엇이고, 너희가 어떤 형태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을 때의 경험은 무엇이겠느냐? 뭔가 한계를 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너희가 초월해서 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어떠한 한계도 초월해 올라갔다는 징표다. 초월하는 단계는 날아다니는 단계다. 너희는 날아다니는 새가 된 다음에 행위라는 칼과 나무의 가지에 내려앉는다.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라는 강력한 형태로 행동하고 나서는 날아간다. 너희는 행위라는 굴레의 그 어떤 가지에도 붙들리지 않는다. 카르마의 굴레에 갇힌다는 것은 한계라는 새장에 갇힌다는 뜻이다. 그것은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고 의존한다는 의미다. 새장 속의 새는 날아다니는 새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날아다니는 새, 즉 아버지에게 속하는 고귀한 영혼들이 제 스스로의 나약함이라는 발톱으로 이런저런 칼과 나무의 가지라는 다양한 굴레를 짊어진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하느냐? 너희는 얘기를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한계를 넘을 힘이 부족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칼과 나무에는 네 가지 유형의 가지가 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유형이 더 매력적이다. 황금 가지, 은 가지, 동 가지, 철 가지 등이 있지만 합류시대라는 가지는 다이아몬드 가지다. 하지만 너희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이아몬드 (히라) 가지에 매달려있다. 합류시대의 행위는 최고로 고귀하다. 이 고귀한 행위들은 다이아몬드 가지다. 합류시대의 행위가 아무리 고결해도 너희는 여전히 고결한 행위라는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너희는 다른 말로 황금 사슬이라고 언급한다. 고결한 행위에서의 한정된 소망들 역시 황금 사슬이다. 그것이 다이아몬드 가지나 황금 사슬이라 해도 어쨌든 굴레는 여전히 굴레다! 밥다다는 너희들 모두에게, “모든 굴레를 넘어서라, 즉 일체의 한계를 초월해라”라며 너희가 날아다니는 새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오늘의 특별한 집회는 고팔 (신봉에서는 암소들의 무리라고 언급됨)의 어머니들의 집회다. 이처럼 거대한 집회를 보며 고팔 (아버지)도 역시 기쁘다. 브라마 바바조차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과업에서 어머니 구루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밥다다는 사랑스러운 너희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신이 준 이 지식의 특별함과 새로움은 샹티들의 화신을 앞에 두는 것이다. 어머니를 구루로 두는 체제를 세우는 것은 여기서 새롭다. 이런 이유로 기념비에는 가우무크 (암소의 입)에 대한 숭배와 칭송도 역시 있다. 너희들은 한정된 어머니가 아닌, 무한한 세계의 어머니들이다. 너희는 이 도취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 세계의 시혜자들이다. 너희들은 단지 너희의 집안만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가정의 시혜자”라고 칭송해 부른 노래를 들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무한한 어머니들의 집회는 고귀한 집회가 아니냐? 어머니들은 경험의 형상들이다. 쿠마리들을 기만당하는 데서 보호하려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어머니들은 경험이 있으므로 한정된 어떤 것에도 기만당할 수 없다. 너희들 중의 대부분은 새로 온 자들이다. 새로 온, 어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더 크다. 밥다다는 어머니인 너희들 모두를 반기며 “환영한다!”라고 얘기한다. 앗차.

무한한 단계에 변함없이 안정되어 머무는 자들에게,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새인 자들에게, 한결같이 마지막 천사의 형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카르마의 어떠한 굴레도 초월해서 변함없이 카르마티트 상태인 자들에게, 목적지에 가까운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밥다다가 봉사자들의 그룹을 만나심.**

밥다다는 도구 자녀인 너희들 모두를 변함없이 어떤 형태로 보느냐? 도구 봉사자들이란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아버지도 역시 봉사자로 여기에 온다. 다양한 형태들은 모두 다 봉사를 위한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도 역시 봉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구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따른다는 의미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을 이 시선으로 본다. 봉사라는 밥다다의 과업에서 너희들은 원래의 보석들이 아니냐?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바바가 선물로 너희들에게 뭘 주었느냐? 그는 너희에게 다만 봉사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봉사라는 선물을 받은 본래의 보석들이다. 밥다다는 모든 이의 특기를 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드라마에서 주인공 배역을 맡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너희 모두 봉사자들이지만,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필요할 때 도구가 되는 것은 오직 일부만이 가진 특별함이다. 변함없는 동반자이며 필요할 때 봉사자인 영혼들은

항상 필요하다. 앓차.

너희들 모두 각자 고유한 특질을 갖고 있다. 바바가 각자의 특기에 대해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각자의 특질은 한결같이 밥다다의 앞에 있다. 너희들 각자에게는 참으로 여러 가지 특질이 있다. 너희들 스스로를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너희들 각자에게는 고유한 특질이 있다. 그러나 밥다다는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에게 거듭 한 가지를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 중 누구든 봉사현장에 나가거나 뭔가 계획한 다음에 실행할 때는 먼저 아버지와 대등한 단계에 안정해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계획하고 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라. 아버지는 모든 이에게 속한다. “그는 아무개의 아버지이지만, 아무개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이가 다, “나의 바바”라 한다. 마찬가지로 도구 봉사자들은, 모든 이가 그들 (도구 봉사자)이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느낄 그런 특질을 가져야 한다. 아무도 그들이 일부 어떤 이들에게는 속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에게는 속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입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해라. 이것을 두고 “아버지를 따른다”라 한다. 모든 이가 소속의 느낌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첫 발걸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특질이다. “나의 바바!”가 모든 이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누구라도 “당신의 바바”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하고, 무한한 내 형제 또는 자매, 디디, 또는 다디다. 이렇게 순수한 축복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 나오게 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 모두 무한한 방식으로 모든 이에게 속한다. 너희가 어딘가에서 도구 봉사자로 살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무한한 봉사자들이다. 너희는 세계를 위한 무한한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각자 너희만의 장소를 계획하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지? 너희는 무한한 계획들을 세운다. 너희는 이 나라와 외국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므로 무한한 느낌과 무한하고 고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경험해라. 이제는 너희들 모두 완전히 다 자란 어른이다. 원숙하다는 것은 경험을 가졌다는 뜻이다. 너희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느 정도로나 경험이 있느냐? 첫째로 너희에게는 각자 나름의 경험이 있다. 둘째로 너희는 남들의 경험을 토대로 경험을 갖게 되기도 한다. 경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은 원숙한 영혼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원숙한 이는 “아버님” (피타지)나 “아저씨” (카카지)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경험을 가진 이가 되어라, 즉, 모든 이에게 소속한다는 느낌을 줘라.

밥다다는 협조적인 영혼들의 협력에 보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준다. 너희들은 협조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변함없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뭘 주겠느냐? 너희는 모든 이에게 오직 사랑만 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의 보물창고라는 느낌을 모든 이가 다 갖게 해라.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시선에서 사랑이 경험되게 해라. 이것이 특별함이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특별한 영혼들의 특별한 의무가 무엇이나? 그들의 특별한 활동, 즉 평범하지 않은, 필요한 활동은 무엇이나? 너희가 모든 이와 같다고 느끼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너희는 특별한 영혼들로 보이는 특기를 가져야 한다. 너희의 모든 발걸음에서 특별함이 경험되게 해라. 그러면 다른 이들은 너희가 특별한 영혼이라는 것, 너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영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들은 뭔가에 대해 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마하비르 자녀들은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없이 건강하다. 몸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 마음에 뭔가 질병이 있을 때는 마음이 병들었다고 일컬어진다. 마음이 병들지 않고 자유로울 때 너희는 한결같이 건강하다. 비슈누처럼 뱀들의 침상 위에 누워있으면서 그저

지식을 되새기고 명량한 상태를 유지해라. 사카르 바바가 연꽃 자세로 앉아있으면서 비슈누의 역할을 행하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 역시 게임에 불과하다. 휘저어라, 왜냐하면 휘저으며 되새기는 힘을 사용함으로써 너희는 대양의 밑바닥까지 갈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만일 대양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너희는 표면에서는 부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방에 있지 않고 대양의 밑바닥에 있다. 너희는 새로운 보석들을 꺼내오려고 대양의 바닥에 가 있다.

카르마의 고통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카르마 요기의 단계에 머무는 것은 승리하는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늘 의식 속에 간직해라. 너희에게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일 없이 여유로울 때 너희가 달리 할 일이 무엇이냐? 그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라. 너희의 이부자리도 역시 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된다.

**밥다다가 어머니들의 그룹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지금 너희의 행운의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느냐? 반짝이고 있는 별인 너희들을 보며 다른 영혼들도 역시 영감을 받는다. 너희들은 그런 별들이 아니냐? 별인 너희들의 광채는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테지? 너희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불멸하는 별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항상 변함 없느냐, 아니면 때로는 날아다니고 때로는 정지해 있느냐? 지금 이것은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의 시대다. 날아다니는 단계인 시기에 만일 누군가 상승단계 도중에 가만히 멈춰서 있다면 그건 좋지 않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예정일 때 다른 여행 방식으로 바꾼다면 너희는 좋아하겠느냐? 이처럼 날아다니는 단계인 시기에 있는 자들은 아래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한결같이 저 위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다. 새장이 깨져서 이제는 창살이 겨우 몇 개만 남았다.

끈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끌어당긴다. 너희가 끈을 이미 열 개 끊었고 단 하나만 남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너희를 끌어당길 것이다. 모든 줄을 끊고 모든 한계를 초월한 자들, 날아다니는 무한한 새들은 한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63생 동안 늘 사로잡혔다. 그러니 이제 이번 한 생에 모든 한계를 초월해라. 이번 한 생은 일체의 한계를 넘어갈 생이며 너희는 때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누군가 여전히 자고 있다면 그것이 좋겠느냐? 그러니 한결같이 모든 한계를 넘어, 무한 속으로 들어가라. 어머니들은 불멸하는 수하그 (유부녀임을 나타내는 상징)의 킬락을 찍는다. 물질세계에서 킬락이 한결같이 결혼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기억의 킬락을 찍어라. 그렇게 결혼한 여자들은 변함없이 복이 있다. 너희들은 매 사이클마다 복이 많은 영혼들이다. 너희의 행운은 아무도 그것을 너희에게서 가로채갈 수 없는 그러한 행운이다. 너희는 변함없이 권리를 가진 영혼들이다. 너희들은 세계의 주인들인데, 세계 왕국이 너희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왕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행운이 너희들의 것이고, 신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영혼이라고 알려져 있다. 너희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질 때는 의존이 없다.

**질문 :** 너희 자녀들의 소득은 어떤 식으로 무한하며 불멸하느냐?

**대답 :** 너희는 아무도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로채갈 수 없는 그러한 소득을 벌고 있다. 복잡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소득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다. 만일 누군가 너희의 이 소득을 가로채가기를 원할 때 너희는 행복할 텐데, 왜냐하면 그 역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약탈하고자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는 더욱 더 행복할 것이고 그에게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더 큰 봉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소득을 버는 고귀한 영혼들이다! 앗차. 옴 샂티.

**Blessing:** 한결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의 즉각적인 결실을 먹음으로써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며 행복하게 머물러라.  
오늘날 사람들은, “신선한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당신은 건강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과일을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너희 자녀들은 매 1초1초마다 즉각적인 결실을 먹는 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 너희에게 어떠냐고 안부를 물으면 너희들은 “저는 행복하고 천사들처럼 움직입니다”라 대답한다.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브라민들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 결코 없다.

**Slogan:** 순수한 영혼은 정결함과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